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3장 환란 중에 기뻐하며

『산상설교』 상권 제13장, 인쇄 175~18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1~12

> ❓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먹고 손해 볼 때, 어떻게 화내지도 주저앉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5:11~12이 10절의 복을 넓혀 제자들의 실제 처지에 적용한 말씀이라고 보고, 이 본문에서 기독교인에 관한 세 원칙을 끌어낸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의 삶은 앞으로 올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스린다. 이어서 박해에 대처하는 단계를 보여 준다.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기뻐해야 한다. 기쁨의 이유는 박해 그 자체가 아니다. 박해가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보상' 개념에 대한 두 반론에 답한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권한다.

📜 절별 정리

📜 1. 본문의 자리와 첫째 원칙: 기독교인은 다르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본문의 자리를 짚는다. 11~12절은 10절(“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확대한 것이다. 주님은 이 복을 그 자리의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신다. 팔복은 하나하나가 기독교인의 성격 한 부분을 보여 주고, 모두 모으면 기독교인의 전체 초상이 된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첫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갈라놓는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성격을 닮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적대한다. 박해의 형태는 다양해도 박해 자체는 늘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박해받은 사람이 없었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장에서처럼 이 마지막 복을 기독교인을 가려내는 미묘하고 큰 시금석으로 본다.

1. 11~12절은 10절의 복을 넓혀 적용한 것
2. 팔복을 모으면 기독교인의 전체 초상
3. 복음은 기독교인과 세상을 분명히 가른다
4.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이 박해를 부른다
5. 세상은 그 차이를 알아보고 적대한다

> **마태복음 5:10**
> 11~12절이 확대하는 바로 앞의 복
>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마태복음 5:11~12**
> 설교 본문: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와 기쁨
>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10:34**
> 복음은 평화가 아니라 '검', 곧 분리를 가져온다
>
>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요한복음 15:20**
>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같은 대우를 받는다
>
>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2. 둘째·셋째 원칙: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둘째 원칙은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께 대한 충성이 다스린다는 것이다. 본문의 “나로 말미암아”가 이 원칙의 열쇠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람끼리 서로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빚졌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몸과 혼과 영 전부를 그분께 드리려 한다. 실천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원만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고백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셋째 원칙은 기독교인의 삶을 앞으로 올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스린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실 터 있는 도성을 찾았다. 그것이 그들의 비결이었다. 반대로 비기독교인은 죽음과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먹고 마시는 쾌락에 머문다. 기독교인은 이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삶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

1. '나로 말미암아'가 박해의 성격을 정한다
2.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분을 위해 산다
3. 실패해도 소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4.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올 도성을 찾았다
5. 세상은 죽음과 영원을 생각하기 싫어한다

> **고린도전서 6:19~20**
>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
>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3:14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 3. 박해에 대처하는 길: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조건을 단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우리가 자연인(거듭나지 않은 본래의 사람)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어서 받는 것이어야 한다. 박해의 모습은 감옥, 수용소, 총살일 수도 있고 실직, 조롱, 수군거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해의 형태가 아니라 대처하는 방식이다. 첫째, 행동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주님이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삶이 아니므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둘째, 속으로 분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는 바울을 예로 든다. 바울은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보이듯 상처를 잘 받는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지에 이르렀다. 셋째,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자기 연민과 우울에 눌려 기가 꺾이지 않는다. 그 위에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복은 자기 노력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린다.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한다.

1. 자연인으로 받는 고난은 이 복이 아니다
2. 1단계: 행동으로 되갚지 않는다
3. 2단계: 속으로 분개하지 않는다
4. 3단계: 자기 연민에 꺾이지 않는다
5. 끝은 억누름이 아니라 기쁨이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빌립보서 1:15~18

시기로 전파하는 자들에게도 원망 없이 기뻐한 바울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린도전서 4:3~4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주께 맡긴 바울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히브리서 12:2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4. 왜 기뻐하는가 ①: 박해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한다

기독교인은 왜 기뻐해야 하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잘못된 기쁨을 걸러낸다. 박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바리새 정신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 기쁨의 참 이유는 박해가 나의 신분을 증명한다는 데 있다.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받았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줄에 서 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신다. 그래서 그는 마귀마저 복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탄에게 “고맙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대 주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고보도 시련을 우리 부르심과 자녀 됨을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두 번째 증거도 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 주님이 받으신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이 말했듯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1. 박해 자체를 기뻐함은 바리새 정신이다
2. 박해하는 자의 죄를 슬퍼해야 한다
3. 선지자와 같은 대우는 택하심의 증거
4. 마귀의 공격마저 자녀 됨의 증명이 된다
5. 고난도 그리스도께 받은 특권이다

> **마태복음 5:12**
>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으니 같은 계보에 선다
>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빌립보서 1:29**
>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특권
>
>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15:18~19**
>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미워한다
>
>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 5. 왜 기뻐하는가 ②: 박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증명한다

기뻐할 두 번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말씀에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꿰뚫는 원칙, 곧 우리의 최종 결말을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부른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 속했다는 뜻이다. 박해는 내게 붙은 '천국행 꼬리표'와 같다.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다스려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곳에 이르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가. 바울도 같은 논리로 지금의 환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 불렀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청중에게 기뻐할 원인이 기다리는 보상 때문임을 정말 믿느냐고 묻는다.

1. 박해는 천국에 속했다는 각인이다
2. 나는 누구, 어디로, 무엇이 기다리나
3. 지금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
4.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결

> **고린도후서 4:17~18**
>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
>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로마서 8:18**
>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책이 참조로 붙인 구절)

“기독교인은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할 사람입니다.”

📜 6. '보상'에 대한 두 반론과 답

첫째 반론은 상과 벌을 따지는 신앙은 저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 그 자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초에 이런 말이 많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동방의 한 여인 이야기를 든다. 그 여인은 한 손에 물 한 동이, 다른 손에 불붙은 연탄 한 동이를 들고 다니며 지옥을 물바다로 만들고 천국을 불태우겠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멋져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며, 성경에서 빗나간 가르침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틀렸다고 답한다. 그리스도 자신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바울도 마지막 날 각 사람의 일이 불로 시험받는다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사역했다. 보상은 우리를 격려하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이상주의 철학에 빠지지 말고 묵상해야 한다. 둘째 반론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보상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보상 자체도 은혜라고 답한다. 공로로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하면 상을 약속하듯, 상은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다. 또 그는 보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도 손해 봤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차등은 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누릴 일시적 죄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택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를 찔러야 한다고 말한다.

1. '상 바라는 신앙은 저급하다'는 비성경적
2. 그리스도도 앞의 기쁨을 보고 참으셨다
3. 바울은 심판대와 면류관을 붙들고 일했다
4. 보상도 은혜,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다
5. 상에는 차등이 있다(손해감은 없다)

> 고린도전서 3:13~14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후서 5:10~11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 주를 두려워한다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디모데후서 4:8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바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가복음 12:47~48

많이 맞고 적게 맞는 종, 보상과 처벌의 차등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1:24~26

모세가 죄의 낙보다 고난을 택하고 상을 바라봄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 7. 하늘의 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의 기쁨

성경은 보상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그 이유를 인간의 언어에서 찾는다. 하늘의 상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작아진다. '사랑', '영광', '기쁨' 같은 말조차 이미 값이 떨어져 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고 그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몸은 변화되어 아픔과 질병이 없고, 모든 눈물이 씻기며, 전쟁과 이별과 불행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불쌍한 사람들, 그분을 몰라서 이러는구나. 그런데 결국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박해는 우리를 꺾기는커녕 기다리는 영광을 더 깊이 깨닫게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기뻐하는가? 천국 생각이 낯설고 두렵다면 우리는 너무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인은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1. 하늘의 상은 말로 담기엔 너무 크다
2. 그분을 그대로 보고 예배할 것이다
3. 몸의 변화, 눈물·질병·이별의 끝
4. 박해는 기다리는 영광을 더 일깨운다
5. 천국이 두렵다면 낮게 사는 것이다

> **요한일서 3:2**
>
>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고 그와 같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빌립보서 3:21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애통·아픔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빌립보서 1:21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3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 오해와 반론

📖 용어

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로 선언하신 여덟(본문까지 아홉) 복으로, 모아 보면 기독교인의 초상이 된다.

박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받는 폭력, 실직, 조롱, 뒷말 같은 적대 행위다.

자연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본래 상태의 사람이다.

바리새 정신
자기가 남보다 의롭다는 데서 만족을 얻는 종교적 자기 자랑이다.

시금석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준이다. 여기서는 이 복이 참 기독교인인지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

하늘의 상(보상)
공로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다.

내세
죽음 이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는 기독교인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표시다.

- 기쁨의 이유는 박해 자체가 아니라, 박해가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데 있다.
- 하늘의 상은 비성경적 이상주의로 버릴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격려이니 늘 묵상해야 한다.
- 천국을 생각하며 기뻐하지 못한다면 너무 낮게 사는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목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